누구나 성불할 수 있음을 설한 것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㊳ 일승(一乘)

〈원문〉 "또 교시가여, 이 경에서 설한 것은 온갖 의심을 끊고 올바른 뜻을 결정하여 일승(一乘)의 도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니라. 교시가여, 지금 이 승만 부인이 사자후한 경을 너에게 부촉하노니, 불법이 머물러 있을 때까지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자세히 분별하여 설하도록 하라."

제석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감사합니다, 세존이시여, 거룩한 가르침을 받들겠습니다."

이때 제석천과 장로 아난과 모임 가운데 있던 천인, 인간, 아수라(阿修羅)와 건달바(乾闥婆)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즐겁게 받들어 행하였다.

〈강설〉 부처님이 교시가에게 이어 말씀하신다. 승만 부인이 설한 법이 일승(一乘)의 도에 들어가는 법이라 하였다. 일승이란 일불승(一佛乘)을 말한다. 쉽게 말해 누구나 성불할 수 있음을 설한 것이 일승이다. 성문(聲聞)이나 연각(緣覺)들인 이승(二乘)들의 수행이 비록 이타 원력이 결핍된 수행이기는 하지만 그들도 대승심을 발하여 성불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초기 불교에서는 아라한과(阿羅漢果)를 얻으면 수행이 완성되어 해탈한다고 하였다. 부파불교에서도 일승이니 일불승이니 하는 말은 잘 쓰지 않았다. 대승경전 특히 〈법화경〉이 설해지고부터 일승이 강조되었다. 〈법화경〉의 대의를 '회삼승귀일승(會三乘歸一僧)'이라 하듯이 〈법화경〉 이전에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의 삼승(三乘)을 설하여 각 승(乘)을 구별한 것은 중생들의 근기에 맞추어 설한 권교(權敎)의 가르침인데 실제로 중생을 부처가 되도록 인도하는 일승의 가르침이 부처님 본래의 가르침이요, 이를 실교(實敎)라고 하였다. 이미 아라한과를 얻었던 사리불, 마하가섭, 수보리 등이 〈법화경〉에서는 모두 수기(授記)를 받는다. 수기란 부처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언하여 성불을 보장해 준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아라한과를 얻은 것이 성불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리불아 부처님은 오직 일불승으로서 중생을 위해 법을 설한다." 〈법화경〉 경문의 한 구절이다. 부처님 실제 법문에 있어서는 이승이나 삼승은 없다고도 하였다.

〈승만경〉의 일승이 〈법화경〉의 일승과 같은 것이다. 일승을 설한 것이 사자후 법문이다. 그런데 이 일승을 〈법화경〉을 소의로 한 천태종과 〈화엄경〉을 소의로 한 화엄종에서 교상판석(敎相判釋)을 달리하여 일승을 동교일승(同敎一乘)과 별교일승(別敎一乘)으로 달리 말했다. 동교일승은 천태종 설로 삼승과 일승의 관계에서 일승이 삼승과 다르지 않아 다 같이 일승으로 회통(會通) 된다는 뜻이고, 별교일승은 일승원교(一乘圓敎)라고도 하는데 삼승법을 뛰어넘어 삼승과 일승을 별개의 것으로 보는 관점에서 한 말이다. 승(乘)은 수레를 뜻하는 말로 중생을 해탈로 인도하는 가르침을 탈것인 수레에 비유하여 하는 말이다. 이 승에는 모두 오승(五乘)있다. 인천승(人天乘), 성문승(聲聞乘), 연각승(緣覺乘), 보살승(菩薩乘), 불승(佛乘)이다. 종파에 따라 불승을 제외하고 인천승을 인간승 천상승으로 나누어 둘로 보고 거기다 삼승을 합하여 오승이라 하는 경우도 있다. 보살승을 빼고 인승, 천승, 성문승, 연각승, 불승 이렇게 오승을 말하는 경우도 있다. 천태의 〈법화문구〉에 인승은 오계(五戒)의 수레를 타고 삼악도의 고통을 벗어나고, 천승은 십선(十善)의 수레를 타고 인간의 팔고(八苦)를 벗어나고, 성문승은 삼계(三界)의 무상(無常)이라는 것을 벗어난다고 하였다. 연각승은 남으로부터 듣는 괴로움을 벗어나고 안으로 지혜가 없는 고통과 밖으로 상호(相好)가 없는 고통을 벗어난다 하였다.

또 〈화엄경소초〉에는 5승을 방향에 맞추어 설해 놓은 이야기가 나온다. 중앙이 불승이고 동쪽이 보살승이며, 남쪽은 연각승, 서쪽은 성문승, 북쪽은 인천승이라 하였다.

부처님 설법을 들을 수 있는 세계를 육도 가운데 천상과 인간, 아수라 삼도(三道)라고 한다. 그래서 보통 경전 말미에 이 삼도 중생이 부처님 설법을 듣고 기뻐하며 신수 봉행했다고 말하는데 〈승만경〉에는 건달바가 추가되어 있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요동치는 마음 비추어보면 자성불 만나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㊶ 중생심 바로 알고 자성불 깨닫자

4. 부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우리는 부처님에 대해 정확한 자각과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가 부처님을 믿고 있지만 자신이 믿는 그 부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맹목적으로 믿는다면, 혹은 남들이 하니까 따라 하는 식의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쉽게 깨어질 수 있다.

△부처님, 중생 마음에 항상있어

부처란 무엇일까? 부처란 중생 스스로가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청정자성(淸淨自性)'이다. 청정자성이란 지금 생각을 일으키고 있는 마음의 당체(當體)를 의미한다. 이 마음의 당체는 불생불멸(不生不滅)하는 진여본성이며, 오고 감이 없는 부동심이다. 이 진여자성을 일러서 무시이래(無始以來)로 구한 바 없이 본래 구족한 '참 나'이며 자성불(自性佛)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마음의 당체는 중생 누구나 스스로 갖추고 있다. 삼세의 모든 부처님께서도 가지고 있는 마음이다. 마음의 당체인 청정자성은 무명의 업식이 일어나기 이전의 마음이며, 불각의 마음이 생겨나기 이전의 마음이다. 또한 육근(六根)이 육경(六境)을 접촉할 때 접촉 다음에 나타나는 촉경(觸境)을 취사선택하며 분별하기 이전의 마음이다. 이 마음을 일러 참나, 진아, 법신불, 자성불 등으로 명명하는 것이다. 생사윤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을 얻으려면 반드시 중생심을 바로 알고 중생의 마음 바탕에 항상 그대로 있는 진여본성인 자성불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옛 조사들은 마음 떠나 따로 부처가 없다고 말한 것이다.

△중생과 부처는 하나의 당체(當體)

중생과 부처는 둘이 아닌 하나의 당체(當體)이다. 〈60권 화엄경(華嚴經)〉 '제16 야마천궁보살설게품'에서 "마음과 같아서 부처도 그러하고, 부처와 같아서 중생도 그러하다. 마음과 부처와 중생에 이르기까지, 이 셋은 차별이 없음이라."라고 마음과 부처와 중생은 차별이 없다는 것을 설하고 있다.

우리들의 마음은 진여본성과 중생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즉 이중성의 마음이다. 그래서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에서 마음에 대해 "일심이문(一心二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일심은 진여본성이지만 이 일심은 이문(二門)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하나는 청정본심에 무명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래장(如來藏)이 되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무명 업식(業識)을 계속 일으키는 중생성인 '아뢰야식'이다. 이 여래장과 아뢰야식 이 두 가지 마음은 원래 한마음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한마음' 곧 '일심(一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태초부터 갖춘 자기 부처

일심인 진여본성은 모든 중생의 마음 밑바닥에 누구나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심은 평등한 것이다. 일심은 평등하여 차별이 없기에 그걸 '진여(眞如)'라고 한다. 이 진여본성이 바로 중생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자성불'이다. 자성불은 태초부터 본래 갖추고 있는 '자기부처'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항상 부처를 찾아 밖으로 돌아 다녔다. 눈을 통해 볼 수 있는 형색의 부처를 찾아 사방천지를 헤매고 다녔다. 〈금강경(金剛經)〉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모습(형상)으로 보고자 하는 자나 나를 음성으로 듣고자 하는 자는 삿된 도(道)를 행하는 자다. 결코 여래를 볼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셨다.

부처님을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선 육근이 육경을 접촉할 때마다 촉경을 향해 밖으로 치닫는 마음을 멈추어 세우고 내면으로 마음을 되돌려서[廻光返照], 요동치는 마음 그대로를 아무런 조작 없이 지속해 비추어보다보면 언젠가 자기의 진여본성인 자성불을 만난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흐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㊳ 말룽끼야뿟따에 대한 경 1

견해는 '나'의 길을 잃게 한다 〈無〉

세상은 영원하다든가,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든가, 세상은 유한하다든가, 세상은 유한하지 않다든가, 영혼은 육체와 같다든가, 영혼과 육체는 다르다든가, 여래는 사후에 존재한다든가, 여래는 사후에 존재하지 않는다든가, 여래는 사후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든가, 여래는 사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든가라는 논쟁은 유익하지 않고, 청정한 삶과는 관계가 없으며, 멀리 떠나고 사라지고 소멸하고 멈추고 삼매에 들고 올바로 원만히 깨닫고 열반에 이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는 누구인가?', '이 뭣꼬?', 서로 다른 뜻을 묻는 듯하지만 같은 의미를 띠고 있다. 하나는 '나[我]'라는 지칭을 분명히 하여 찾고 있고, 다른 하나는 '나[我]'라는 지칭은 생략되었지만 '나[我]'를 가진 시점은 두고 있다. 어떤 모양을 가지고서, 그 모양의 양변에 빠지지 않고 양변을 벗어나 본원으로 돌아가는 일은 그 본원에서 보면 말이 되지 않는 일이다. 하지만 모양을 가진 입장이라면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다. 오랜 세월, 많은 이들은 '완전한 상태가 무엇일까'를 고민하였다. 그러나 정작 그 한 생각을 일으키는 그 자가 완전한 상태에 흙탕물을 뿌리고 있다고는 한 번도 의심해보지 못한다. 왜냐하면 출발 없이 이 모든 일이 완성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엇을 가지고 완성을 이루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마음인지가 깊이 와 닿아야만 한다. 모든 생각들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반복하여, 더 이상 생각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님이 사무치도록 철저해지는 순간, 본래 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문이 없어 문고리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 무엇인지 알면, 청정한 삶이라는 것은 물질로 이루어진 삶에서는 불가능한 일임을 안다. 청정함이 가리키는 곳은 물질이 아니라 그 이름이 청정하다는 것이다. 이름만 있지, 그것을 지칭하는 물질은 존재할 수 없을 때, 진정한 청정함이 되는 것이다.

물질, 느낌, 지각, 의도, 의식을 멀리 떠나면, 다시 새롭게 무엇을 더 알아야 할 것이 사라진다. 생성하여질 뿌리가 자양분으로 삼아야 하는 것들이 완전히 소멸하여 멈추어 버리니, 다시 모양으로 삼을 만한 것이 일어나지 않는 삼매에 든다. 허상으로 만들어 놓은 모든 견해가 사라지니 몸과 마음으로 보았던 모양과 소리가 없어지는 것이다. 오랜 시간 동안 생명체는 본원으로 돌아가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한다'는 것이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되어 버린 것이다.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 견해가 확고한 세상에서 멈춘다는 것은, 어찌 보면 물속에 들어가 물에 젖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도 같다. 그러니 견해의 정글에서 떠나야만 '나[無]'의 멈춤이 무엇인지를 믿게 되고, 움직이고 있는 것에 대해, 내가 될 수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다.

물론 열반이 어디에 있는 일도 아니고 어디를 떠나는 일도 분명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여 또는 그것으로 있다고 하여 그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움직인다면 입으로는 아니라 하지만 몸은 따라와 주지 못하는 꼴이 되니, 정작 자신만 모르는 일이 된다. 하는 것은 없지만 밝히지 말라는 것은 아니니, 움직이는 그것에서 바로 밝혀야지 움직이는 것을 쫓아다니거나 움직임이 없는 자리에 안주해서도 안 된다.

수행을 통해 계합하고자 하지만 견해를 가지고 있는 한 계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학문적인 견해, 경험적인 견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견해들은 '나[無]'를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나[無]'의 길을 잃게 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스스로는 아무 견해를 가질 수도 없고 견해를 세울 수도 없는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만을 그것으로 삼는다. 이 마음만이 청정한 삶을 살게 하고, 멀리 떠나 사라지고 올바로 원만히 깨닫고 열반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일일시호일

응급 수술 받았지만
심장 구멍 다시 뚫려 생명 위험

스리랑카에서 온 산지와씨 염색공장에서 10년간 일해
의식 잃고 쓰러져 응급실행…청구된 병원비만 2200만원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